“아직까진 괜찮지만…연이은 비 소식에 걱정 태산”

광주 풍암·원산동 등 작년 피해 지역 주민들 노심초사
방수포·물막이판 설치 등 철저 대비…“올핸 무탈하길”

“올해 장마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진 없지만,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2일 오전 9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석축 일부에 파란색 방수포가 덮어져 있다.

방수포로 덮인 석축 바로 위에는 야산과 경계를 구분하는 난간이 있었는데, 언덕 아래로 반쯤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난간과 석축 군데군데는 인근 야산에서 흘러내린 듯한 흙으로 덕지덕지 칠해져 있었다.

석축 사이에는 ‘낙석 위험’이라는 안내판이 줄지어 있었는데,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6월 기록적인 폭우로 석축이 무너져 토사가 유출된 곳이다.

당시 다수의 석축이 무너진 게 아니어서 큰 피해는 없었으나, 만일 그랬다면 인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도 충분히 토사가 유입되고 시설물 파손 역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다.

이에 해당 아파트 측은 올해 초 보수공사를 완료했으나, 지난해 석축 무너짐을 겪은 주민들은 혹시 올해도 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지 불안감을 내비쳤다.

주민 박모(20대)씨는 “올해 장마 동안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하던데, 혹시 또 돌이 무너져 피해를 입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계자는 “석축이 무너진 후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취약한 부분에 방수포를 설치했다”며 “당시 무너졌던 부분을 제외하곤 모두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혹시 모를 사고 방지를 위해 방수포를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일 오전 10시께 광주 남구 원산동 대골제 일원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김병호(72)씨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 농장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주성학 기자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컸다.

남구 원산동 대골제 인근 농가 대부분은 지난 주말부터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 비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농가들은 마음을 놓지 않고 애써 키운 작물이 상품성을 잃지 않도록 논 주변 배수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몇몇 비닐하우스 농장은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물막이판을 설치해 둔 상태였다.

12년째 이곳에서 약 1천487㎡(450여평)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다는 김병호(72)씨는 배수로의 상태를 살피며 “지난해 입은 피해가 워낙 커 좀처럼 안심이 되질 않는다”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김씨는 “당시 장마로 인근이 전부 물에 잠겨 키우던 17종의 작물 모두 죽었었다”며 “앞으로 일주일 넘게 비가 온다는 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오늘 저녁부터 비가 다시 온다고 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를 다시 살피는 중”이라며 “날씨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무사히 넘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주성학 기자

보도방 이권 다툼 ‘보복살인 조폭’ 재판대에

檢, 보도방 업자 14명 직업안정법 위반 기소

‘보도방 이권’ 다툼 끝에 보복성 살인을 저지른 5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기소됐다.

2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광주지역 보도방 업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A(5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께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성매매 근절’ 촉구 성격의 집회를 준비 중이던 B(44)·C(46)씨를 흉기로 찔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B·C씨와 ‘보도방 이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여년 전부터 보도방을 운영해 온 A씨는 업계에서 ‘해결사’로 통했다. 이는 A씨가 신규 보도방 업자의 유입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통제 방법으로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들 연락처가 저장된 ‘콜폰’을 사용했다.

신규 보도방 업자가 이 콜폰을 구매하려면 기존 사용자에게 300만원을 줘야 했는데, 이마저도 A씨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영업을 그만둘 때 콜폰을 인수하겠다는 이가 없으면 A씨에게 반납하고 30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한 신규 보도방 업자에게 300만원을 받고 콜폰을 넘겼으나, 해당 업자가 영업을 그만둔다고 할 때 3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신규 업자 C씨와 그를 돕는 지인 B씨에게 흘러가면서부터다.

이를 두고 C씨 등은 “갈취·횡령”이라며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다른 경쟁 업자들과 A씨를 성매매알선 혐의 등으로 신고하며 보도방 업계에서 내쫓으려 했다.

이 시기 A씨와 C씨의 갈등으로 인한 영업 차질을 우려한 유흥업소 업주들은 ‘상가번영회’를 조직, 접객원을 직접 고용하려 했다.

이를 위협으로 인식한 C씨 등은 지난달 6일 상가번영회 회장의 업소 인근에서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개최한 데 이어 A씨에게 전화로 ‘보도방 업자 갈취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A씨는 C씨 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사건 발생 직후 검찰은 경찰과 함께 ‘보도방 이권’ 다툼 수사에 착수, 보도방 업자 14명을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우선 기소했다.

A씨도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도방 운영으로 2억7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재영 기자

‘보조금 과다 집행’ 남구노인복지관 직원 2명 파면

950여만원 손실…區 “추가 비위 여부 조사 중”

광주 남구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과다 집행한 남구노인복지관 직원 2명이 파면됐다.

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노인복지관은 지난 5-6월 자체 감사를 실시, 소속 직원 2명의 보조금 과다 지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복지관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구매 비용을 집행했는데, 지난 1-5월 5차례에 걸쳐 950만원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다 지출은 올해 1월 식료품 도매업체와 맺은 계약 단가보다 더 큰 비용을 남구노인복지관에 청구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복지관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해사’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 징계 수위로 파면을 결정했다.

복지관은 2주간 이들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뒤 최종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같은 날 자체 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남구도 복지관의 5년치 회계 내역을 들여다 보는 중이다.

이와 함께 과다 수익을 올린 업체로부터 950만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추가 비위가 드러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성학 기자

시청 앞 교차로서 SUV가 시내버스 추돌…2명 부상

광주시청 앞 교차로에서 SUV가 시내버스를 추돌해 2명이 다쳤다.

2일 광주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9분께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 교차로에서 A(50대)씨의 SUV가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시내버스 우측 후면 범퍼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버스는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2차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B(20대·여)씨와 승용차 운전자 C(60대·여)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른 20여명의 승객들은 정상 귀가했다.

조사 결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A씨가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 중이던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음주 상태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주성학 기자

‘선결제 폐업’ 필라테스업체 경찰 수사

광주 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선결제 할인’ 등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일체의 환불 없이 돌연 폐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다수의 A 필라테스 수강생으로부터 폐업 통보 후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A 필라테스 문흥동 소재 업체로, 지난 1일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폐업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영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無 감미료 無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